연예인 내세워 270억원 모아 83억 가로챈 업체 대표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5일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수 천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모은 광주 C주류 판매업체 대표 엄모(37)씨 등 3명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 등은 올 1월부터 광주에 주류 판매회사인 C업체 사무실을 차려 놓고 "주류·화장품·건강식품·납골당 분양사업에 1계좌당 35만~1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140~300%를 돌려주겠다"며 7천5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270억원을 끌어 모아 이 가운데 화장품과 납골당 사업을 통해 모은 83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엄씨는 지난 3월 유명 여자연예인 A(31)씨를 술 광고 모델로 내세워 하루에 10억~30억원을 끌어모으기도 하는 등 총 179억원의 자금을 수신했지만, 원금보다 많은 각종 수당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면서 손해를 보게 되자 화장품·건강식품 판매, 납골당 분양 사업으로 유사수신 영역을 넓힌 뒤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를 본 투자자 대부분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서민들로, 유명 연예인의 광고만 믿고 업체에 대한 확인작업 없이 자금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엄씨가 올초 모 경제일간지에서 실시한 대한민국 소비자 경영대상과 대한민국 혁신 경영인 대상을 수상, 투자자들이 더욱 현혹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현금제공 혐의 교육위원 후보자 고발

보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7·31 전라남도교육위원선거를 앞두고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 A씨와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A씨의 외조카 사위 B씨를 2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남 3선거구 후보자 A씨는 지난 22일 보성군 관내 학교운영위원 C·D씨에게 전화로 지지를 부탁하면서 자신의 친인척인 B씨를 통해 C씨에게 현금 20만원, D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뉴라이트 단체' 전교조 위원장 고발

자유주의연대와 자유교원조합 등 뉴라이트 단체는 전국 시·도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을 2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전교조가 홈페이지에 조직후보의 사진을 실어 공개하고 출정식을 개최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며,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나주 초·중 교사들 '자기수업 영상테이프 갖기' 열풍

"저게 교단의 내 모습이라구?"

말투·태도 고쳐가며 '수업의 質' 개선
반대하던 전교조 등 77% 358명 참여

"제가 녹화한 수업을 직접 본 뒤로는 '아따!'와 같은 교육상 부적절한 사투리나 단어를 쓰지 않게 됐습니다."

교직경력 19년째인 나주 다시초등학교 6학년1반 담임 김성님(여·42) 교사는 올 1학기 스스로 큰 변신을 했다. 나주시교육청(교육장 홍희준)이 올 초부터 실시 중인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자기수업 영상테이프 갖기 운동'에 참가, 자신의 수업을 직접 촬영해 모니터링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한 것이다.

김 교사는 세 번씩이나 모니터링을 되풀이한 끝에 이제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하곤 했던 '막 말'은 아예 않게 됐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등 교수기법도 크게 향상됐다. 아이들 역시 녹화된 수업 장면을 함께 보면서 스스로 잘못된 수업 태도를 고쳐나가는 등 행동에 변화를 보였다.

나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1학기 중 관내 38개 초·중교 교사 464명 가운데 77.2%인 358명이 '자기수업 영상테이프 갖기 운동'에 동참했다. 나주북·양산·반남·세지북·왕곡·동강·문평·문평남·노안남·금천·금천남·산포·다도초 등 13개교는 전 교사가 참여했고, 나주·나주중앙초교 교사들도 속속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중학교도 14개교 중 9개교 교사가 참여했다.

경력 15년째인 남평초교 양수열(40) 교사는 "내가 몰랐던 나쁜 점을 '자기수업 영상'을 통해 발견하고 고치는 기회가 됐다"며 "우리 학교의 경우 이 운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모든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당초 "관청이 주도하는 자기수업 영상 갖기는 교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일부 참여 교사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잘못된 수업 습관을 고치는데 최적의 방법 중 하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다. 현재 참여 교사의 절반은 전교조 소속으로 추정된다.

전교조 전남지부 장주섭(49) 나주지회장은 "나 자신도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설 때 오늘 수업이 제대로 됐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다"며 "강제성만 띠지 않는다면 효과가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나주교육청 김향희 장학사는 "해외연수 특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며 "연말까지 모든 교사가 참여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나주 다시초등학교 김성님 교사가 캠코더로 촬영한 자신의 수업 내용을 살펴보며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나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 가막만에 '빈산소수괴'

〈산소 희박한 물 덩어리〉

어류 양식장 피해 우려…내달까지 계속될 듯

여수시 가막만 북부해역에 용존산소 농도가 극히 희박한 '빈산소수괴'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는 25일 여수시 가막만 북부 해역에 '빈산소수괴'가 형성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여수시 가막만 일대의 해양환경 조사를 한 결과 북부해역 100㏊ 수심 5m 이하 저층수의 용존산소(DO) 농도가 3mg/ℓ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빈산소수괴'가 형성된 해역은 산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황화수소가스(H2S)가 발생, 수중 서식생물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양식어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소 측은 수하식 양식장의 경우 '빈산소수괴'가 형성된 수심을 고려하여 수하연(양식용 줄)의 길이를 짧게 조절해야 하며, 주변 어류 양식장의 경우 갑작스런 '빈산소수괴'의 이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막만의 경우 중앙부인 안포~금죽도와 소경도를 연결하는 해역의 수심은 4m 정도지만, 북부해역은 7~8m로 커다란 웅덩이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조류 소통이 어려워 '빈산소수괴'가 생기고 있다.

남해수산연구소 측은 '빈산소수괴'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말까지 정기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결과를 관련 기관과 어민들에게 빠르게 알려 수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빈산소수괴'(低酸素水塊)='산소가 희박한 물 덩어리'를 뜻한다. 여름철 조류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영양화된 해역에서 발생한다. 바다 표면의 수온이 높아지고 담수가 유입돼 염분 농도에 차이가 생김으로써 표층수와 저층수가 분리되며, 결과적으로 표층수와 저층수의 혼합이 이뤄지지 않아 표층수의 산소가 저층수로 공급되지 못하면서 생긴다.

나원참 〈6890〉 김종두

573명 가입 '의사전용 음란카페' 적발

쌍나팔

○…의사 573명이 가입한 의사 전용 음란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카페에 음란물을 게시한 현직 의사 7명이 경찰에 덜미.

○…서울 강남경찰은 25일 의사 전용 음란물 카페를 개설한 혐의(정보통신법상 음란물유포)로 카페 운영자인 안모(37)씨와 카페에 음란물을 게시한 양모(42)씨를 비롯한 회원 6명 등 현직 의사 7명을 불구속입건.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5월 4일 한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음란카페를 개설한 뒤 회원 가입시 의사면허번호와 논문 제목 등을 기재토록 하는 등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의사들만을 회원으로 확보했다는 것.

○…안씨는 특히 다른 사람의 알몸 등을 훔쳐보며 만족을 얻는다는 의미의 '관음'(觀淫)이라는 단어를 이용, 불교사찰을 연상케 하는 '관음사'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하고 극락전·대웅전·시주전 등 불교 용어로 게시판을 분류·운영했다고.

/연합뉴스